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6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187~190쪽 (장 번호는 본문의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와 뒤따르는 '제17장' 표시로 추정)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글로 쓰면 말씀이 덜 인격적이 된다”는 브루너 등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먼저 인정한다. 그러면서 기록에는 오래 남고 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고유한 장점이 있다고 맞선다. 이어서 이 장 전체를 떠받치는 전제를 세운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사람이 한순간 겪고 끝나는 경험이 아니다. 대대로 보존하고 물려주라고 주신 것이다. 그 근거로 족장들의 제단과 기둥, 신약의 '전통 전수' 언어를 차례로 보여 준다. 다음으로 “계시가 보존되면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고 조종하게 된다”는 바르트의 반론에 답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 왔다고 결론짓는다(요시야 개혁, 이사야 40:8).

📜 절별 정리

📜 1. 글로 쓰면 말씀이 덜 인격적이 되는가

에밀 브루너(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강조한 20세기 스위스 신학자로 알려짐)와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말씀이 글로 굳어지면 인격적인 성격이 약해진다. 프레임은 이 주장을 단칼에 물리치지 않고 일부 진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사도 요한도 편지를 길게 쓰기보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서 기쁨을 채우고 싶다고 했다. 얼굴을 맞댄 만남은 글이 다 담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이 문제는 책 뒤쪽(43장, 사도가 직접 와서 함께 있는 것의 의미)에서 다시 다룬다. 그러나 반대로 글이 대면보다 나은 점도 있다. 글은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적인

1. 브루너: 기록된 말씀은 덜 인격적이다
2. 프레임: 일리는 있다(요한도 대면을 원함)
3. 대면은 글을 넘어서는 소통을 준다
4. 그러나 글은 더 영구적이다
5. 그래서 글은 공적·공식 기능에 맞다

> **요한이서 1:1**
>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편지 수신자. 번역본에는 1:2로 표기되어 있으나 1절이 맞다
>
>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 **요한이서 1:12**
> 요한이 종이와 먹보다 대면을 원함. 인격적 만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근거
>
>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2. 왜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가

프레임은 이 장부터 책의 초점이 기록된 계시로 옮겨 간다고 밝힌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기록된 계시를 사람과 소통하는 중심 통로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에 닿는 주된 길은 성경이다. 그 성경을 성령께서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이 전달한다. 그러려면 먼저 현대 신학의 편견 하나를 걷어내야 한다. 그 편견은 이렇다.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시에 대해 사람이 남긴 기록일 뿐이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다. 성경은 스스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은 자주 글을 통해 오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권위를 지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헌법으로 세우셨다. 각주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에도 답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하면 순환논리 아닌가?” 최고 권위를

1. 하나님이 기록을 소통의 중심으로 정하심
2. 오늘의 주된 접근로: 성령의 조명 + 교회의 가르침
3. 편견: “성경은 계시에 대한 인간 기록일 뿐”
4. 답: 성경은 스스로 성경론을 가르친다
5. 기록된 말씀 = 음성과 같은 권위, 교회의 헌법

이 절에서는 구절을 직접 들지 않는다. 근거는 3~6절에서 차례로 제시한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 3. 계시는 남겨지도록 주어졌다 — 족장들의 기념물과 언약 공동체

성경이 기록된 계시를 가르치는 밑바탕에는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에게 번쩍 왔다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다. 지켜서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프레임은 성경이 아직 글로 묶이기 전, 족장 시대에도 이런 '오래 남김'이 강조되었다고 보여 준다. 노아는 홍수 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무지개를 약속의 표지로 주셨다. 각주에서는 이렇게 덧붙인다. 무지개 하나하나는 사라지지만 그것을 표지로 정하신 일은 영구하다.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기념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환상을 본 뒤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프레임은 이것들이 기록된 계시는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오래가는 증거를 남기려는 하나님과 족장들의 뜻을 보여 준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맺어진다. 하나님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새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 그 말씀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기게 하신다. 입으로 전하는 것도 한몫하지만, 보존의 통상적인 방법은 기록이다.

1. 계시는 순간 체험이 아니라 전수할 것
2. 노아의 제단, 무지개 = 약속의 영구 증인

5. 언약은 가족·세대와, 보존의 통상 수단은 글

창세기 8:20

노아가 구원에 응답해 쌓은 제단. 언약 기념물의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9:12-17

무지개를 언약의 표지로 세우심. 약속의 영구한 증인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7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기념해 세겜에 쌓은 제단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18

헤브론의 제단. 약속을 기념하는 같은 패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35:14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다시 세운 기둥. 말씀을 기념하는 행위의 반복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4. 신약에서도: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을 지키라

신약도 같은 그림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15장에서 다룸).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까지 마음에 두셨다. 계시는 '전통'으로 넘겨지는 것이다. 먼저 성부께서 성자께 넘기시고 (헬라어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성자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알리신다. 바울도 부활의 소식을 '받아서' 교회에 '전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든 편지로든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했다.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멀리하라고도 했다. 디모데에게는 맡긴 것('파라테케', 맡겨 둔 귀중품)을 지키라고 했다. 프레임은 이렇게 정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에게서 성자께, 사도에게, 교회에 전해진 분명한 내용이다. 그것은 제자도와 교리와 행동의 기준이다. 그래서 변호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한다. 유다가 말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각주에서는 구분을 덧붙인다. 신약에는 좋은 전통만 있지 않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인간의 전통도 있다. 그런 전통은 참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말씀을 밀어내므로 거부해야 한다.

1.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2. 성부→성자→사도→교회로 '넘겨진' 복음
3.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4. 전통 = 제자도·교리·행위의 기준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보존의 약속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7:20

제자들의 말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계시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마태복음 11:27

성부께서 모든 것을 성자께 '넘겨주심'. 전수의 첫 고리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3)

바울이 받은 부활 소식을 전함. 저자는 장절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구절에 해당

고린도전서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구두와 기록이 같은 권위로 나란히 놓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6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를 멀리하라. 전통이 교회 생활의 기준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6:20

맡긴 것('파라테케')을 지키라. 지켜야 할 내용이 있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2-14

바른 말을 본받고 맡긴 것을 성령으로 지키라. 같은 '보존' 주제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베드로후서 2:21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의 심각성. 전해진 내용의 무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유다서 1:3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 완결된 내용을 지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마태복음 15:6

(각주)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함. 나쁜 전통의 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 5. 바르트의 반론: 계시는 그 순간에만 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뛰어난 신학자다. 그는 계시는 보존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 순간에만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그 일을 돌아보는 '회상'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만 남는다는 것이다. 그가 염려한 것은 이것이다. 계시가 영구한 것이 되면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고 휘두르고 조종하게 된다. 프레임은 먼저 바르트의 옳은 점을 인정한다. 우리가 말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 특히 신학자가 말씀을 물건처럼 다루는 함정에 빠져 왔다는 직관에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언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려내기는 어렵다.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 계시의 영구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 절들에서 보았듯이 그런 부정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 프레임은 마지막에 '자신의 인상'이라고 단서를 달고 이렇게 덧붙인다. 바르트를 따르는 신학자들이 오히려 말씀의 주인처럼 굴며 계시를 자기를 부풀리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는 경향이 있다.

1. 바르트: 계시는 순간적, 회상과 기대만 남음
2. 염려: 영구하면 인간이 소유·조종한다
3. 프레임: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함은 옳다
4. 그러나 '말씀의 상품화'는 증명이 어렵다
5. 영구성 부정은 비성경적이고 해결책도 아님

이 절에서는 새 구절을 들지 않는다. 앞의 3~4절 전체(족장의 기념물, 신약의 전통 전수)가 “영구성 부정은 비성경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다.

프레임은 바르트의 논리를 뒤집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 주권을 지키시지 않았다. 오히려 족장의 기둥과 제단처럼 사람 사는 풍경 속에 계시를 박아 두심으로써 주권을 확실히 하셨다. 하나님은 율법책을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자리에 두게 하셨다. 또 정해진 때에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로 삼으셨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율법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유지했다. 훗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것이 요시야 왕에게 전해지자 온 나라의 회개로 이어졌다. 사람은 말씀에 덧붙이고, 빼고, 무시하고, 잘못 쓰고,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주인으로 설 수는 없다. 오래 남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알리는 표지다.

1. 하나님은 계시를 '남겨서' 주권을 지키심
2. 율법책을 지성소에 두고 공개 낭독하게 하심
3. 잊혔던 율법책 발견 → 요시야와 온 나라의 회개
4. 사람은 말씀을 왜곡해도 지배할 순 없다
5. 영구성은 하나님 말씀의 표지

> **신명기 31:26**
>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라. 기록이 성소 한가운데 놓임
>
>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 **신명기 31:10-11**
> 매 칠 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공적이고 반복되는 권위
>
>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 **열왕기하 22:8-20**
>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회개함. 남아 있던 말씀이 배도한 나라를 다시 다스림
> (번역본 표기 22:8-23는 22:8-20의 오기로 보이며, 계속은 23장까지 이어짐)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

이사야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섬. 장 전체의 결론 구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며 또한 말씀이 가진 영구성은 말씀의 표지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인격적 말씀

영구성(영원성)
이 장에서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세대를 넘어 계속 권위를 갖는다는 뜻. 성경 책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목록.

언약의 표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세우신 눈에 보이는 징표(예: 무지개).

전통(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헬라어. 여기서는 성부에게서 성자, 사도, 교회로 전해진 복음 내용을 가리킨다.

맡긴 것(파라테케)
'맡겨 둔 귀중품'이라는 헬라어.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할 복음의 내용.

성령의 조명
이미 주신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비추어 주시는 일.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과 다르다.

순환논증
결론을 증명하려고 그 결론을 전제로 쓰는 논증. 프레임은 최고 권위에 관한 논증은 피할 수 없이 이런 성격을 띤다고 본다.

배도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는 것.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글로 된 말씀은 대면보다 '덜한' 말씀이 아니라, 오래 남고 공적으로 쓰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다.
- 계시는 처음부터 보존되고 대대로 전수되도록 주어졌다. 족장의 기념물, 신약의 전통 전수가 그 증거다.
-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권위를 지니며 교회의 헌법 역할을 한다.
- 바르트의 염려처럼 사람이 말씀을 휘두를 위험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아 있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다.
- 사람은 말씀을 왜곡할 수는 있어도 다스릴 수는 없다. 오래 남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표지다(이사야 40:8).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4편 ·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 사건, 음성, 선지자와 사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